

체납고지서 중복 발송에 헛돈 쓰는 구청들

광주 4개 구청 발송비 3년간 25억원…체납액 20% 이상 낭비
통합 발송 복구 3%대와 대조적…비용 절약할 방법 찾아야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송달비 등으로 한해 평균 수십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체납독촉고지서 중복 송달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에 따르면 이들 4개구의 지난 3년여 간(2015년~지난달 30일 현재)주·정차 위반 체납액은 115억 9100만원으로 이중 우편료·인쇄료 등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비용은 체납액의 21.66%인 25억 1100만원이다.

다만 복구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위반

건수별로 발송하는 방식과 달리 동일인일 경우 위반체납액을 통합 발송하는 방식을 적용, 체납액 대비 발송비용이 3%대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 등 4개 구청의 연도별 체납액 및 고지서 발송비는 ▲2015년 체납액 37억 9250만원(고지서 발송비 7억 9180만원·20.80%) ▲지난해 체납액 41억 3130만원(“ 9억 9560만원·24.10%) ▲올해 체납액 36억6710만원(“ 7억 2350만원·19.73%) 등이다.

체납자들이 각 구에서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서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비용으로 아까운 혈세가 한 해 평균 20%

이상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구는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료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지난 3년간 체납액이 17억 2060만원이었으나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비는 34.57%인 5억 9490만원이었다. 지난 2015년엔 체납액(4억1720만원)의 40.78%인 1억 7010만원을 발송비로 썼다.

이어 ▲광산구 108억 8180만원(발송비 24억 4820만원·22.49%) ▲동구 25억 8230만원(“ 4억 3720만원·16.93%)·서구 48억 3970만원(“ 3억5870만원·8.17%) 등이었다.

특히 이 같이 막대한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비용을 투입하고도, 실제 체납액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발송비를 아낄 수 있는 징수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선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한해 형세 낭비에 따른 페널티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각 구가 인력난과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체납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 발송만을 고집하는 점을 개선하고, 복구처럼 통합발송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시스템상 독촉분에 대한 체납징수액은 별도로 집계가 어렵긴 하지만, 고지서 1건당 인쇄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등기우편 1960원, 보통 우편 330원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아까운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6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재소자 농장터에서 문화재 발굴 전문인력들이 호미·작은 삽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 항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경사면 윗쪽서 유해 발굴 가능성

전체 117m 3개 구간 나눠
호미·작은 삽 이용 작업

배관 발견돼 한때 작업 중단

5·18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6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암매장 발굴 조사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

다.

재단은 이날 “오전부터 문화재 발굴 인원들이 표토층 제거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발굴조사 실무를 맡은 대한문화재연구소는 전체 117m(폭 3m)을 40m씩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동쪽지역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갔다.

40m를 다시 10m씩 4개 구간(Pit·피트)으로 나눴다. 발굴 인원들은 하루에 1개 피

트씩 조사한다는 계획으로, 호미·작은 삽 등을 이용해 깊이 1.5m까지 파내려 갈 계획이다. 재단은 4개 구간 중 경사면 상단 2개 구간에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일 대한문화재연구소 실장은 “표토층을 제거하면 기반토(基盤土)가 나온다”며 “교도소 부지 기반토는 노란색으로, 흙을 파고 다시 메우면 검은색의 겉흙이 기

반토에 섞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매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깊이 20~70cm 지점에서 배관 5줄이 발견돼 한 때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5·18재단은 배관이 통신 시설 또는 상수도 시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1999년 무렵 배관이 묻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70cm 정도 굴착했지만 암매장은 더 깊은 곳에서 이뤄져 재단은 발굴 조사와는 크게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현재 사용 여부에 따라 배관을 절단하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억대 리베이트에 불량레미콘 납품 묵인 건설사·레미콘업체·공무원 100명 적발

전남경찰, 수사 확대

전남에서 레미콘 업체들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업계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건설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레미콘 등 부실 건설자재 납품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자능범죄수사대는 6일 “레미콘 업체 7곳에서 1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사기 등)로 조모(55)씨 등 33개 건설사 관계자 65명과 레미콘업체 관계자 28명 등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금액이 많은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를 받는 보성군청 공무원 2명, 농어촌공사 직원 1명 등 3명과 규격 미달 레미콘을 속여 납품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등 4명도 형사입건했다.

또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등 4명도 특경법상 사기·건설기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조씨 등은 레미콘 납품량에 맞춰 리베이트 비율을 정하거나 납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자재관리 상무로 근무하던 조씨는 레미콘 업체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납품량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레미콘 1㎡당 1000~1500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받았다.

관급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인 고모(45)씨는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송장을 발행하도록 해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앞서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 306억원어치를 납품하다가 적발된 전남의 한 레미콘 업체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90억원대의 규격 미달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레미콘 업체는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정도 줄이는 방식으로 90억원어치(13만㎡)의 레미콘을 전남지역 아파트 5곳과 전남 동부권 공사현장 180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는 지난 6월 규격미달 레미콘 306억원어치를 광주, 나주, 여수, 순천 광양 등지의 공사현장 2500곳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 시공·보수된 건물과 도로의 안전성을 진단해 줄 것을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의뢰했다. /박진표기자 lucky@r

사업장 폭발사고 1명 부상

정원 초과 어선 부두 충돌

6일 오전 10시 14분께 여수시 신월동 모 업체의 여수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제품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으며 불은 나지 않았다.

이날 사고로 A(56)씨가 손가락이 골절돼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측은 제품 시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레이더 등 야간 항해 장비도 없이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어선이 부두와 충돌해 5명이 다쳤다.

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께 광양시 세방부두 앞 해상에서 1.46t 어선이 입항하던 중 부두 구조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A(45)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승선 정원(2명)을 3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왜 내 차에 소변 보려고 해!” 화난 20대가 취객 폭행



○…편의점 이용을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20대가 자신의 차 뒷바퀴에 소변을 보려한 중년남성을 폭행해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문모(24)씨는 지난 5일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변에 자신의 야반때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만취한 박모(47)씨가 바지지퍼를 내리고 차량 뒷바퀴에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것.

○…문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 간 여자인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씨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내 차에 오줌을 싸려고 했다”며 “박씨에게 소변을 보지 말라고 따지자 되레 화를 내 다투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